

태고로부터 이어져 온 생명의 이야기.



안바루의 숲

우간 가주마루

일본 최대급의 아열대 조엽수림이 펼쳐지는 안바루는 이곳에서만 서식하는 동식물이 다양하게 존재해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자연의 보고입니다. 류큐 열도는 대륙과 분리 및 결합을 반복해왔고 이때 살아남은 생물들이 수만 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걸쳐 고유종으로 각각 진화한 것입니다.

다이세키린잔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안바루 국립공원' 내 특별 보호구역에 있습니다.

원시의 잔



2억 5천만 년 전의 고생대에 바닷속에서 형성된 석회암이 지각 변동으로 지표에 나타나게 된 다이세키린잔. 아울러 수백만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용식 및 침식되어 깎아지른 거친 기암들이 즐비한 독특한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의 형태가 자리 잡기 시작할 때부터 이곳에 자리했던 산. 현재도 빗물과 박테리아의 미미한 작용으로 석회암이 용식되어 가는 모습을 산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이세키린잔은 세계 최북단에 위치하는 열대 카르스트지형. 돌리네(절구 모양의 웅덩이), 타워 카르스트(타워 모양의 석회암 대지), 피너클(탑 모양의 석회암 언덕), 카렌(바위 표면의 비늘 모양의 홈) 등 카르스트의 다양한 특징이 다채롭게 존재합니다.

아득한 저편에 있는 나라



추라우미 전망대 스테이지



4개가 이어진 바위산

해도곶에서 바라보는 다이세키린잔

'아시무이'라는 4개가 이어진 바위산에 있는 다이세키린잔. 정상에 올라가면 수평선 너머로 요른섬과 오키노에라부섬이 보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아득한 저편에서도 보이는 이 웅대한 바위산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신천지를 찾아 떠날 때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40개가 넘는 우간주(참배소)가 있는 아시무이. 이곳은 17세기에 편찬된 류큐 최초의 역사서 '중산세감'에 창시의 시조신 아마미키요가 최초로 만든 성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12~17 세기에 류큐 조정이 편찬한 오키나와에서 가장 오래된 가요집 '오모로소시'에는 아시무이의 용천수가 왕의 생명으로 왕가의 장수를 기원하는 정화수로 사용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숲에는 시시가키라는 돌담과 가축 울막으로 보이는 석조물이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산기슭에 조몬 시대에서부터 야요이 시대의 마을터 유적 '우자하마 유적'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선사시대, 사람들이 이곳에서 터를 잡고 생활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류큐 로빈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



이루칸다(3월~4월)



냄비 연못



소철 군락



아가리메



시시가키



가축우리터